

인민은 하늘

수십년전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것이며 인민을 떠나서는 혁명도 있을수 없고 나라도 있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였다.

인민보다 위대하고 성스러우며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는 투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시였다.

자신께서는 일생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고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지붕밑에서 정을 나누며 살것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력사에는 인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그 어느 력사에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삼으며 한생토록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같은 인민의 아버지가 있었던가.

하늘처럼 여기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섬기신 인민!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리념과 희생적인 헌신이 집약되어있다.